



1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기념공원에서 국제인턴으로 선발된 대학생 12명이 ‘광주정신 계승’을 외치며 힘찬 나라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에 순차적으로 파견된다. 파견기간은 내년 5월 말까지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월 대동정신 세계에 전파”

■ 5·18재단 국제인턴 12명의 각오

“이젠 우리가 피파 흘러 가꿔온 민주주의의 모델을 세계에 전파해야죠.”

1980년 5·18 민중항쟁의 대동정신과 한국의 선진 민주주의를 동남아시아 등에 전파하려는 전도사들이 있다. 바로 5·18 기념재단이 민주·인권·평화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매년 선발하고 있는 국제인턴과 견대학생들이다.

국제인턴은 5·18 기념재단에서 한국현대사와 5·18 민중항쟁 등을 교육받은 뒤 동남아시아 등에 파견돼 선진 민주주의를 알리고 원주민의 인권보호 및 한인 커뮤니티 권익보호를 돕는 국제시민·사회활동가들이다.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대만·인도·인도네시아·태국·미국 등에

순차적으로 파견될 제8기 국제인턴 대학생들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17일 만났다. 국제인턴 참가자는 12명이다. 이들은 내년 5월 말

“미국 내 한인 여성 인권문제 해결 온 힘

동남아선 한국 민주주의 경험 알려야죠”

(기간 10개월)까지 파견 지역에 근무하면서 민주·인권·평화로 대변되는 ‘광주의 오월 정신’을 알리게 된다.

고달픈 타국 생활을 앞두고 있지만 이들의 얼굴은 한없이 맑았다. 비록 작은 힘이지만 민주주의 후진국에 5·18의 대동정신을 심고, 민

주주의 우월성을 깨칠 기대감 때문이다. 또 자신이 직접 만든 민주·인권·평화에 관한 프로젝트를 이들과 국민에게 전할 자신감도 가득 차 보였다.

미국에 파견될 국제인턴 학생들은 미국 내 국제결혼 한인 여성의

이다.

대만의 인권단체에서 근무할 이 찬섭(26·전남대 4년)씨는 “친구 소개로 국제인턴 파견사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5·18 민중항쟁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며 “5·18 민중항쟁의 의미와 진정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LA로 파견될 박지원(여·24·전남대 4년)씨는 “미국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이념대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직도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부당한 대우 등은 여전히 있다”라며 “광주 오월정신인 대동 화합의 정신을 이들에게 전파, 스스로 물리치는 용기를 심어주고 오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에너지·수돗물 사용량

시청은 줄고 구청은 늘어

지난해 광주시청과 각 자치구청의 에너지 사용량이 지난 2007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청은 비교적 큰 감소폭을 보였으나, 자치구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사용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시가 자체조사한 ‘자치단체 청사 에너지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이 지역 자치단체 청사 에너지 사용 금액은 15억9천688만 원으로 지난 2007년 16억4천756만 원에 비해 5천68만 원이 감소했다.

시청의 경우 지난해 7억4천302만 원으로, 지난 2007년보다 5천753만

원이 줄었으나, 동구를 제외한 서·남·북·광산구 등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또 수돗물은 광주시청이 지난해 4천364만7천 리터를 사용해 지난 2007년보다 213만3천 리터가 줄었으나, 마찬가지로 서구·동구·광산구 등 각 자치구는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인 광주에서 자치단체 청사부터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도 일부 자치구에서 에너지나 수도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산성비 농도 높아졌다

전국 평균 보다는 낮아

광주에 내리는 비의 산성도가 9년 전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 내린 비의 수소 이온농도(pH)는 5.2로 지난 1999년 5.5보다 다소 강한 산도를 보였다.

지난해 광주를 비롯한 전국 37개 지역에 내린 비의 평균 수소 이온농도(pH)는 4.9로 ‘약산성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1999년의 5.2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이다.

산성비(pH 5.6 이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과 석탄, 석유 등의 연료가 연소되면서 나오는 황산화물 등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 탓에 산성화된 비를 뜻한다. 산성비에 포함된 오염물질은 물고기 폐사로 이어지거나 땅에 쌓여 산림 황폐화를 일

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지난해 산성비 농도를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pH 4.6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인천 4.8, 부산·대구·울산 4.8, 광주 5.2 등으로 조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도시가스료 내달 인상

광주지역 도시가스요금이 다음달부터 소폭 인상된다.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 난방용과 영업용,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을 m당 3원 38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주택 난방용은 m당 현재 767.08원에서 770.46원으로, 영업용은 m당 782.46원에서 785.84원으로, 산업용은 m당 681.39원에서 684.77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남구에 ‘이소연 꽃길’

주월동 장산초~푸른 길 공원 200m

광주시 남구에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의 이름을 딴 ‘이소연 꽃길’이 조성된다.

광주시 남구는 이르면 내년 3월께 ‘이소연 꽃길 가꾸기’ 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소연(31) 박사는 남구에 위치한 광

주과학고등학교 출신이며, 남구는 지역 출신인 이 박사 이름이 들어간 꽃길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동시에 주민 삶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소연 꽃길’은 광주시 남구 주월동 장산초~푸른 길 공원 구간

(200여m)에 조성될 예정이며 2010년 6월께 첫 돌을 보인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 총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입하게 될 ‘이소연 꽃길 가꾸기’ 사업에는 꽃길과 함께 입체벽화, 예술펜스도 포함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대학교수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한 뒤 ‘국내 최초 우주인’이란 상징성을 살려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3곳

장마 속 열대야

아침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광주를 비롯해 전남 3곳에서 관측됐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3.2도 높은 25도를 기록했다. 고흥과 장흥, 완도도 평년보다 3~4도 높은 아침 최저기온을 보여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날 고흥과 장흥, 완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각각 25도, 25.4도, 25.3도를 기록하는 등 밤과 아침에도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기상청은 남해상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복사열 냉각이 잘 되지 않은데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열대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광주에 열대야가 나타난 것은 지난 8일이 처음이며, 14일에도 관측됐다. 기상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광주에 7번의 열대야가 관측됐으며, 올해는 장마의 영향으로 현상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자원봉사단 한마음 축제

17일 광주시 북구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자원봉사단 친목 한마음 대축제’ 참가자들이 줄넘기를 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사)광주 북구장애인복지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등 700명이 참석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시국선언 또 참여 땀 가중 처벌”

교과부·전교조 대규모 충돌 우려

검찰, 1차선언 광주·전남 교사 조사 마무리

19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차 시국선언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1차에 이어 또 선언에 서명한 교원을 가중처벌하기로 하는 등 한층 수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혀 대규모 충돌이 우려된다.

교과부는 17일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지난달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엄정처분을 받은 교원이 2차 시국선언에 또 참여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1, 2차 시국선언으로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은 교원의 숫자를 전국 학교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 1만 7천여명 가운데 광주·전남 9명 등 88명을 징계 및 검찰 고발하고 나머지 참여 교사에 대해서도 현재 시·도 교육청을 통해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교과부는 이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다음달 31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예정대로 19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이라는 이름으로 2차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에 서명한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과 목포지청은 최근 1차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광주·전남지역 전교조 간부 9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불법집단행동 금지)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야당이 오는 19일 개최할 예정인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공무원과 교사를 엄단하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은 17일 대검찰청에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니원침 (7858) 김장두



전처 내연남

흥기로 찢러

북부경찰 3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청은 17일 전처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흥기를 휘두른 최초(3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새벽 3시5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사는 전처 이모(28)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안에 A(28)씨가 있는 것을 보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배를 수차례 찌르고 이를 멀리 던지려 하려하자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자녀 양육문제를 의논하러 집에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방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가 전처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금은방 강도

베트남서 오늘 송환

금은방 3억원대 패강도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남부경찰은 베트남에서 체포된 일당 편모(50)씨가 18일 국내로 송환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편씨 신병을 넘겨받기 위해 수사팀 1명 등 2명을 베트남으로 급파했다”며 “편씨의 신병을 인수함에 따라 도파중인 일당 2명 등에 대한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예초 지난 2일 베트남에서 인턴폴 등에게 붙잡힌 편씨를 8일께 넘겨받으려 했으나, 현지 일정 등으로 편씨에 대한 신병 인수가 늦어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쳐다본다” 술집 옆자리 손님 폭행

상다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잠시 밖에서 얘기나 하자’며 끌고 가 주먹을 휘두른 조직폭력배 4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청은 17일 술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3명을 한적한 곳에 데려가 마구 때린 폭력조직원 조모(25)씨 등 4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4일 새벽 1시20분께 광주시 동구 한 맥주집에서 술을 마시던 선모(28)씨 등 3명이 자신들과 눈이 마주쳤다면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온몸을 폭행한 혐의.

○“폭력전과 4법인 조씨 등은 경찰에서 “종게 말로 끝내려고 했는데, 술집에 주먹을 휘둘렀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